

최경식 남원시장, 국비 확보 총력

기재부 찾아 현안사업 필요성 설명·협력 요청

남원시가 2028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제차 방문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10일 기재부를 찾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적극 협력을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우선 △도자전시관 건립(문체부, 총사업비 170억원) 관련, 정향우 사회에 산실의관과 정성원 문화예산과장을 만나 남원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가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예산 증액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국토부, 190억원) △국제 드론레이싱 경기 운영 시스템 구축(국토부, 43억원)과 관련해 최용호 국토교통예산과장에게 미래 드론사업 거점 도시로의 도약 필요성과 국제대회 유치 효과를 강조하며 국회 단계 예산



최경식 남원시장은 10일 기재부를 찾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부지 교환 건에 대해 이상섭 국유재산협력과장과 면담하고,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의 성공적인 개교와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한 부지 교환을 요청하고,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경찰청, 442억원)과 관련해 마용재 국유재산조정과장을 만나 경찰의

교육·연수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설명하고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제차 강조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회 심의 단계는 국가예산 확보의 마지막 고비”라며, “기재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원의 미래 성장동력이 흔들림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업설명회

임실군, 100여명 대상 실시

임실군이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업설명회를 추진한다.

군은 지난 9일 오수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군청 설명회까지 모두 100여 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시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5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등 고용주



들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2026년부터 개정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 등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근로자 선발 및 배정 절차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안내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개정 사항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외국인 차별 방지와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고용주들의 이해를 높였다.

심 민 군수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용주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상생하는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김영태 남원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방문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이 10일 새벽 부안광역시 농협반여공판장을 찾아 농산물 경매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

이번 방문은 상추와 방울토마토 등 남원 농산물의 주요 출하처인 도매시장에서 품질이 우수한 남원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농산물공동법인 이창준 대표 및 공판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남원 농산물의 우대 거래와 가격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현장에는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을 비롯해 이창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으며, 도매시장의 생생한 유통 과정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출하 및 유통 과정에서 남원 농산물이 더 나은 조건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태 의장은 “도매시장은 농산물



가격과 유통 구조에 결정적 있는 중요한 현장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농민들의 피땀으로 거둔 작물이 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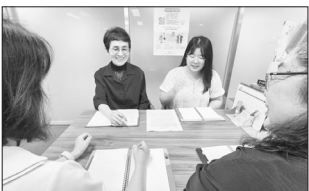
맞춤형 취업지원 성과 ‘뚜렷’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140명·알선 179건 등 기록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가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실업난 해소와 주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25일 설립된 일자리지원센터는 순창군 행복누리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그동안 구인·구직 알선, 동행면접 지원,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홍보, 일자리 협력망 구축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고용센터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실업급여 상담소를 운영하며, 일자리사업 안내 및 상담, 홈페이지 관리 등 고용복지 서비스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현재까지 센터의 알선 실적은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취업 140명, 구인 104건, 구직 242명, 맞춤형 알선 179건, 동행면접 54건을 기록하는 등 지역 고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노인일자리, 여성취업, 귀농귀촌, 공동체 일자리 등 순창군의 지역 특성을 살린 포괄적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해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순창군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해 순창군청, 위크넷,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시간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지원 시스템의 접근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일지러는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행정 분야”라며 “앞으로도 순창군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고용지원과 촘촘한 협력망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실시

남원시가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월락과 송동배수지를 대상으로 진행 △구조물 균열 여부 및 노후 상태 등 안전성 점검 △관로, 밸브, 수위계 등 기능점검 △내부 청결 상태와 방수 상태,

주변 환경 등 유지관리 및 환경 점검 등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월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수,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순창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주거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긴 연휴기간 동안 증가가 예상되는 귀성객과 관광객, 전통시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서는 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모집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요양병원·요양원 등 노약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관서장이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지도와 안전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취약자를 대상으로 기초소



방시설을 보급,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아파트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대피요령 홍보 등 맞춤형 안전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운전원·환경미화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임실군이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등 48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환경미화원들의 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노동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도로 등 가로 청소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처리 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해 일상 청소 업무 중 소홀하기 쉬운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뒀다.

심 민 군수는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과 현장점검을 통해 청소 근무자들이 현장의 위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벌 쏘임 예방·응급처치 요령 안내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쏘임과 성묘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벌 쏘임 사고 예방과 올바른 응급처치 요령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9월은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벌초나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말벌은 작은 자극에도 집단으로 공격해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노약자의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밝은색 옷 착용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벌집 발견 △시 접근 금지 등 사전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며,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늘에서 안정을 취하고 △벌집이 피부에 박혀 있으면 카드 등으로 밀어 제거해야 하며 △손으로 짜내거나 뽑아내는 행동은 삼가야 고, 호흡곤란, 정신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증상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